

다. 그 경향에서 볼 때 제이의 논의는 말하자면 경험없는 담론과 담론없는 경험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포스트 구조주의를 정점에 두고 하이데거의 사유와 (본 강연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랑크푸

르트 학파를 연결하는 현대 서구 철학의 삼각의 문제를 선부른 예단은 삼가하면서 - '탈'보다는 '후기'로 파악되는 것이 더 적절한 - '탈근대적' 조건 하에서의 사유의 한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겠다.

제37차 콜로키움

제목: 증거론이란 무엇인가?

일시: 1994. 11. 11

강사: 김도식(서울대 강사)

Gettier가 반례를 통해, 앎을 '정당화된 참 믿음'으로 정의한 전통적 입장이 앎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부족함을 지적한 이래, 많은 인식론자들은 '정당화된 참 믿음에 어떤 조건을 더해야 앎의 올바른 분석이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인식적 정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최근 이삼십년 동안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가 인식론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 즉 토대론, 정합론, 신빙성론 등은 나름의 문제에 의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앎의 필요조건인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으로 1985년에 리처드 웨드만과 얼 카니에 의해 발표된 증거론(evidentialism)이 많은 주목을 받으며 등장하게 된다. 증거론은 '인식적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EJ) 어떤 사람 S가 어떤 시점 t에 어떤 명제 P를 믿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E는 S가 t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이며,
- 2) P를 믿는 것이 E와 맞아 떨어진다(fit).

이러한 증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증거로 간주되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며, 맞아떨어짐(fitness)이 무슨 뜻 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증거론에서의 증거는 감각적 증거(perceptual evidence)와 명제적 증거(propositional evidence)의 두 종류로 나뉜다. 그리고 명제적 증거는 정당화된 믿음, 증언적 증거, 그리고 명제적 기억 등으로 이루어진다.

‘증거를 가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HE) 어떤 사람 S가 일정 시점 t에 E라는 증거를 갖고 있음의 필요충분조건은 S가 t에 E를 머리 속에서 생각하고 있음이다.

그리고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이 증거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이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뜻이다.(이 부분은 증거론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며, 아직 완성된 분석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증거론은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증거론은, 가지고 있는 감각적 증거와 명제적 증거와의 맞아 떨어짐에 의해

서 어떠한 믿음이 정당화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증거론은 여타의 ‘인식적 정당화’ 이론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거론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들이 있어 왔다. 우선 증거론의 입장에서 반박가능한 반론 둘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람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서도 증거를 처리하는 능력이 다르다면 같은 믿음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반론으로는 ‘셜록 홈즈의 예’, ‘골드만(Alvin Goldman)의 예’, ‘논리학의 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반론은, 증거를 처리하는 능력을 명제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증거를 처리하는 능력이 다른 두 사람은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론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식적인 직관에 따르면 정당성 보장(warrant)이 없는 믿음을, 증거론은 정당성 보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플라팅가의 반론이 있어 왔다. 즉 증거론에 따르면, 착시에 의한 감각적 증거 역시 어떠한 특정한 믿음과 맞아 떨어짐의 관계

만 만족시키면 그 믿음의 정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증거론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정당화(justification)와 정당성 보장(warrant)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론에 대한 반론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플라팅가가 사용하는 정당성 보장이란, 참인 믿음을 앎으로 만들어 주는 조건, 즉 정당화애다 앎의 네번째 조건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론에서 말하는 정당화와 뚜렷이 구분된다. 따라서 증거론은 착시에 의한 정당화가 정당성 보장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플라팅가의 반론은 증거론에 대한 적절한 반론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증거론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결의 과제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그러한 과제로서 레인 맨 반례를 들 수 있다. 즉 동일한 시각적 증거를 가진 두 사람,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떨어진 이쑤시개가 246개라는 동일한 명제를 믿음에 있어서 다른 정당화를 가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반례는 증거론이 해결해야 할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앞서 '증거를 가짐'의 분석으로 제시된 (HE)에 따르면, 내가 아무 명제나 머리 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그 명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HE)가 정당화된 명제가 아닌 아무 명제나 생각하기만 하면 증거가 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E)를 다음의 (HE*)으로 고치겠다.

(HE*) 어떤 사람 S가 일정시점 t에 E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

IFF 1. E가 감각적 증거라면 S가 t에 E를 의식하고 있고,
2. 만일 E가 명제적 증거라면 E가 S에게 정당화되어 있으며, S는 t에 E를 머리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HE*)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HE*)는 인식 정당화의 분석인 (EJ)의 필요조건이고 (HE*)에 정당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정당화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정당화라는 말이 들어 가게 되는 순환적 분석(circular analysis)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EJ)를 회귀적 분석(recursive analysis)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묘안은 아직 필자에게 없으며, 따라서 '증거를 가짐'에 대한 분석은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맞아 떨어짐'에 대한 분석의 문제가 미결의 과제이다. 앞서 증거와 믿음의 '맞아떨어짐'을 증거가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뒷받침 역시 더 이상의 설명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뒷받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연역적, 귀납적 관계를 들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뒷받침의 관계는 미결

의 과제이며, 따라서 '맞아 떨어짐'의 관계 역시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게 된다.

이제까지 증거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그것에 대해 제기된 반론들을 살펴 봄으로써, 증거론이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론이지만, 나름의 미결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증거론은 아직 완성된 이론은 아니며, 증거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지적된 미결의 문제의 해결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제38차 콜로키움

제목: 주자철학에 있어서 心의 문제

일시: 1994. 12. 9

강사: 정상봉(서울대 강사)

발표자 정상봉은 주자철학 연구에 있어 '사상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주자의 심론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流行'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자가 자신의 철학 체계를 분명히 하였다고 파악한다. 주자는 中和舊說과 中和新說 사이에 心體流行이란 동일한 철학 명제를 사용하지만 그 함의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며, 정상봉은 주자의 중화구설

을 협의의 심체유행설, 중화신설을 광의의 심체유행설로 설명하고 있다. 즉 省察先於涵養의 중화구설은 心이란 외물에 접하여 감응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涵養先於省察의 중화신설은 心을 외물에 접하지 않은 상태와 접하여 감응한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화신설의 완성으로 주자는 仁說을 확립한다.